

배포

2026. 4. 27.(월) /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## 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건설사 소통 간담회 개최

- 관악 난곡동, 서대문 홍제동 등 8곳 약 7,300호 시공사 선정 계획 공유
- 설계·시공 통합발주, 기간단축, 안정적 자원조달 등 LH 참여 강점 홍보

- 한국토지주택공사(LH)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건설사와의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(월) 밝혔다.
  - 이번 간담회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(서울시 모아타운, 이하 관리지역)의 사업 장점과 인센티브 등을 소개함으로써 우수 건설사 등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인하고자 마련됐다.
- LH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향후 시공사 선정이 필요한 관리지역 총 8곳(약 7,300세대 규모)에 대한 시공사 선정 로드맵을 제시했다. LH는 올해 4곳(▲관악난곡▲서대문홍제▲강서화곡▲금천시흥2), '27년 4곳(▲동작노량진 ▲성북종암 ▲종로구기 ▲인천가정)에 대한 시공사 선정을 순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.

< LH 관리지역 지구별 사업개요 및 시공사 선정 계획 >

| 구역명        | 구역수       | 사업면적   | 계획세대수        | 시공사 선정 공고 | 비고 |
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|
| 관악난곡       | 2         | 41,039 | 1,044        | '26년 2분기  |    |
| 서대문홍제      | 1         | 39,442 | 883          | '26년 3분기  |    |
| 강서화곡       | 3         | 59,657 | 1,929        | '26년 3분기  |    |
| 금천시흥2      | 1         | 8,068  | 231          | '26년 2분기  |    |
| 동작노량진      | 1         | 34,555 | 834          | '27년 1분기  |    |
| 성북종암       | 1         | 11,755 | 302          |           |    |
| 종로구기       | 2         | 41,539 | 799          |           |    |
| 인천가정       | 1         | 36,689 | 1,302        |           |    |
| <b>합 계</b> | <b>12</b> |        | <b>7,324</b> |           |    |

- 이와 더불어 관리지역 사업의 장점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.
  -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4만㎡까지 사업 면적이 확대돼 단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과, '설계·시공 통합발주' 계획이 가능해 사업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알렸다.
  - 또한, LH의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한 주택도시기금 저리 용자로 안정적인 초기 사업비 조달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, 정비계획 수립 절차 생략이 가능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주요 장점을 소개했다.
-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“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핵심 사업”이라며, “간담회를 계기로 사업 규모 확대와 공공 지원책을 널리 알려 우수한 역량을 갖춘 중·대형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|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|
| 담당부서 | 수도권정비사업<br>특별본부 | 책임자 | 팀 장 | 박성수 | (02-6400-5427) |
|      |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차 장 | 민경환 | (02-6400-5434) |